

“한전공대 나주 유치 올인...스마트 생태문화도시 도약”

강인규 나주시장 민선 6기 취임 3년

인구 10만명 12년만에 회복·혁신산단 분양률 40% 돌파
141개 기업 투자 성과 등 원도심·혁신도시 동반성장 박차

“인구 10만명 12년 만에 회복, 예산 25% 증가, 혁신산단 분양률 40% 달성...”

강인규 나주시장의 지난 3년간 행보는 개선된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년 전만 해도 10만명을 밑돌던 인구는 올 7월 10만8000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나주혁신산업단지 분양률이 40%를 넘어서며 활기를 띄고 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강 시장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임 3주년을 지나면서 이후 행보에도 어떻게 하면 나주를 전남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엮여 있다.

강 시장의 현장 행보가 부족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우선, 한전공대의 나주유치에 총

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그는 한전공과대학 입학 선정과 관련, “혁신산단에 입주할 에너지기술실증센터와 나주혁신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주변지역으로 생기가 확산, 성장하게 되는 만큼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 주민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는가 하면, 혁신도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방과후학교나 영어 캠프를 지원하거나 사립고 유지를 위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역 주요 산단에 2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141개 기

업이 실제 투자를 하는 성과도 올렸다. 나주시는 이 과정에서 4208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남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과 투자유치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인규 나주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나주목 관아, 음성 4대문 복원사업을 비롯, 경현동 일대에 58만2406㎡ 규모의 숲채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장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지면서 발전하는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나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다.

“스마트 생태문화도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해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16개 공공기관이 5년동안 출연자금 형식으로 1000억원을 조성하고 나주시는 부지나 현물 등을 지원해 스마트산업문화연구소, 문화경제클러스터 등을 설립해 혁신도시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나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혁신도시 내 첨단 ICT 기술이 시너지를 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금성관 야경

나주들노래보존 모내기 시연·체험마당잔치



나주시는 최근 다시면 복암리교분전 시관 앞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들노래보존 모내기 체험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소리꾼들의 들노래 지휘에 맞춰 본격적인 모심기 행사가 재현됐고 중학생들의 다시들노래 따라하

기 프로그램 등도 진행됐다.

나주들노래는 다시들노래, 동강봉추들노래, 노안학산들노래, 봉황내촌들노래 등 4개 들노래가 전승·보존되고 있다. 나주문화원은 매년 시연 및 체험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다시들노래의 경우 지난 1974년 전국

민속경연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임경렬 나주문화원장은 “공연장에서 나 들을 수 있었던 들노래를 직접 논에서 재현, 예전 노동요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올해 스타기업

에스엠코리아·청담 선정

나주시가 올해 스타기업으로 에스엠코리아(주)와 (주)청담 등 2곳을 선정했다. 또 예비스타기업 개념의 Pre스타기업으로는 (주)광일식품과 농업회사법인명성제분(주), 한양식품 등이 꼽혔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스타기업과 예비스타기업을 선정, 지역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스타기업의 경우 나주시가 최근 지역 15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더 많은 스타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잇따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 많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원천기술의 경쟁력 ▲기술·제품의 시장성 ▲조직 역량 ▲지원의 효율성 ▲기대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종합 컨설팅 등 기업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과 경영혁신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21일 개장...내달 20일까지 운영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사진>이 오는 21일 개장에 8월20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자락 1만㎡ 부지에 조성된 생태 물놀이장은 871㎡ 규모의 풀장, 평상(17개), 파라솔(10개) 등을 갖췄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은 계곡물을 사방담에 저장하여 필요시 물놀이장에 공

급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주변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됐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 다만, 주차 공간이 부족, 주차장 이용료는 받는다.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은 1만3716명에 달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등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인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바름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메이지 리거, 기아타이거즈 서재용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 정확한 진단! 정성으로 다가갑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